

봄날, 산이정원서 가족과 특별한 추억 남기세요

26일 ESG체험프로그램... 어린이사생대회·북콘서트 등 다채

전라남도도는 따뜻한 봄날, 가족 단위 방문객이 자연 속에서 특별한 체험을 즐기도록 해남 솔라시도 산이정원에서 오는 26일 '산이정원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이정원은 전남 최초의 정원형 식물원으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공간이다.

이번 봄 행사는 ESG경영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공연,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가족 단위 관람객과 어린이에게 특별한 봄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내가 꿈꾸는 ESG 세상'이라는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어린이 사

생대회가 열린다. 정원의 자연을 직접 느끼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작은 현장 심사를 통해 시상과 함께 산이정원에 전시된다.

가든뮤지엄 2층 카페에서는 'ESG 북콘서트'와 'ESG 에너지 정원 토크쇼'가 진행된다. 김창섭 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김인호 환경교육연구소장 등과 국내 최고의 환경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방문객과 함께 ESG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원 곳곳에는 친환경 머그컵 만들기,

ESG 풍경 그리기, 환경캠페인 부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어린이 오케스트라, 태권도 시범, 댄스공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연도 진행된다.

서순철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산이정원은 생태·문화·교육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자연의 가치와 환경의 중요성을 느끼는 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시간은 산이정원 공식 누리집(www.sanigarde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원 기자



광주시 “2·4주 토·일 김치타운서 김치 담그세요”

‘김치담그기’ 운영... ‘나눔과 연대’의 5월엔 매주 진행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4월26일부터 11월9일까지 매월 둘째·넷째주 토·일요일 광주김치타운에서 ‘김치담그기’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김장철 외에도 언제나 김치를 담그고 싶은 시민 수요를 반영해 지난해부터 운영했으며, 올해는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개최 시기를 4월로 앞당겨 시작한다.

일정은 광주김치타운 다목적체험관에서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되며, 참가자는 ‘이달의 김치’로 선정된 김치 3종을 직접 담가 가져갈 수 있다.

4월의 김치에 배추김치, 총각김치, 파김치가 선정됐다. 특히 5월에는 ‘나눔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매주 토·일요일에 김치담그기를 운영한다. 또 ‘동글동글 주먹밥’ 만들기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전통식품품질인증관에서 HACCP(식품 안전 관리 인증기준)을 받은 광주지역 김치제조가공업체가 참여해 국내산 원재료를 만든 김치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판매한다.

김치 담그기를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단체는 ‘빛고를 사랑나눔 김장대전’ 공식 누리집(www.kimchigwangju.co.kr) 또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다만 김치가격은 원재료 시세를 반영해 매달 달라질 수 있다.



※ 현장 직접 담그기(4월 기준) : 배추김치 5kg(3만원), 총각김치 3kg(1만8000원), 파김치 3kg(2만1000원)

한편 김장을 담아가는 본행사인 ‘2025년 빛고를 사랑나눔 김장대전’은 11월28일부터 12월14일까지 17일간 개최할 예정이다.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취약계층에게 김치를 기부하는 행사는 연중 가능하며, 김치기부를 희망하는 기업체나 단체는 언제든지 빛고를사랑나눔김장대전 사무국(062-676-36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광주김치타운에 오면 사계절 내내 광주김치를 담그고 맛볼 수 있는 연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광주김치타운을 둘러보고 맛있는 광주김치의 비법도 전수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도일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오는 6월부터 현장에 종사 중인 건축사들이 민원인에게 직접 대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민원 상담실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건축민원 상담실이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문을 연다. 무료 컨설팅으로 경제적 부담이 없는데다 건축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어 민원인이 구청을 여러 차례 방문할 필요가 없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다.

광주 남구, 민원인 호응 ‘건축민원 상담실’ 연다

경제적 비용 부담 제로·시간 낭비도 덜어

특히 6월부터 9월 사이에 건축민원 상담실을 집중적으로 여는 이유는 이 시기가 건축 최대 성수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남구는 광주시 건축사회와 손잡고 총 30회에 걸쳐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 상담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오

는 6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남구청 1층 북카페 제1회의실을 찾으면 된다.

상담실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광주시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10명이 순번제로 근무하면서 민원인의 고충 거리를 해소해 나설 예정이다.

무료 컨설팅의 범위는 토지 매입 전 건축행위 가능 여부를 비롯해 건축 인허가 절차, 농지 및 산지 전용부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 공사 중 민원 발생에 대한 관련 법규 등이다.

남구 관계자는 “민원인 대다수가 관련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구청을 수시로 방문하는 불편이 잦았는데,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민원인의 이러한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있다”면서 “건축 관련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오영순 감염병관리과장은 “감염병의 상당수가 손을 통해 전파되는 만큼 손 씻기는 예방의 출발점이자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생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서구, 초등학생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

올바른 손 씻기·손가락 채조 등으로 재미와 이해력 높여

역력이 약하고 개인위생 관리가 미숙한 아이들에게 올바른 위생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올바른 손 씻기 방법 ▲호흡기 감염병 예방·관리법 ▲생활 속 개

인위생 수칙 ▲손가락 채조 ▲면역력을 높이는 체온 관리 요령 등 쉽게 따라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손을 씻은 다음 손에 남은 형광물질을 직접 확인하는 ‘뷰박스’ 체험은 아이들의 큰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22일 초등학생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서구는 이날 오전 만호초등학교(금호동)를 찾아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관리와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수두·백일해 등의 감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

1면에서 이어짐

전남도는 참가 선수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르도록 57개 전 경기장의 소방, 전기, 승강기 등 분야별 종합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순천 팔마실내 테니스장, 나주 스퀘시경기장을 포함한 12개 시군 16개 경기장 개보수 공사도 마무리했다.

대회 기간 각종 분야별 상황실을 운영해 선수단과 방문객의 불편 사항에 빠르게 대처할 계획이다. 선수단의 원활한 이

동을 위해 전세버스와 택시 등 총 400대를 지원한다.

모든 경기장에 의료 인력을 배치해 경기 중 발생할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대한체육회와 각 종목단체협회를 대상으로 낚음식 섭취 주의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사전에 안내했으며, 대회 기간 숙박·식품 종합안내센터를 운영해 선수단과 방문객의 불편 사항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 대축전에는 일본의 생활체육 동호인 151명이 참가해 농구, 축구, 연식야구 등 8개 종목에서 대한민국 동호인과 교류

경기를 펼친다. 이는 단순한 경기 참여를 넘어, 스포츠를 매개로 양국 간 민간 차원의 협력과 상호이해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준비됐다. 문화행사 및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목포해상W쇼, 화순 불꽃 축제, 신안 피아노섬 축제, 함평 나비대축제 등 지역 대표 행사도 함께 열려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한 선수단과 가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서남부권(목포·영암), 중남부권(장흥·강진), 동부권(여수·순천), 북부권(담

양·곡성), 4개 권역 펌투어도 운영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도, 시군 공무원, 공무원·출연기관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도민응원단 5천여 명과 자원봉사단 1천여 명도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3개년 종합 스포츠대회의 피날레를 장식할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선수단을 비롯한 방문객이 만족하도록 대회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